

목양칼럼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가장 멀리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다음 빈칸에 여러분이 가보신 가장 먼 곳을 떠올려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먼 길이 있어요.

저 남미도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지요.

머리에서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 입술까지가 참 멍니다.

하나님에 대한 머리의 생각들이

마음으로 내려와 하나님 사랑이 되고,

마음의 하나님 사랑이 입술의 하나님 찬양이 되기가

왜 이렇게 멍고 먼지.

오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찬양 집회가 있는 것 아시죠?

평일, 찬양 드리러 나오시기가 너무 먼 거리이신가요?

혹시 마일리지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먼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참 멀었는데.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걸음으로 내려오셨는데.

머리에서 마음이, 마음에서 입술이,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교회가,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병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총회국회 (646)789-1118	
창다/중국어부 (929)204-6868	
직원 장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OPEM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지휘 / 윤원상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9월 17일
제 43-38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9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정성호 장로 2부 / 장봉석 장로 3부 / 고국환 장로 4부 / 이희영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5:1-23	사회자
찬양 CHORUS	믿음으로 가리라 내가 너와 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눈 열어주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일이 생각처럼 안될 때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438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384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장년 성경 공부

오후 4:00 (9/17/17)	사회: 홍승룡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기도	계화자 전도사
광고	사회자
말씀	오인수 목사

마태복음 6:30-32

주기도문(IV)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찬송	주기도문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Matthew 18:21-35
Prayer	Dn. Edward Song
Sermon	Rev. Peter D. Kim

“Ten Thousand Talents of Grace”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Исаия(Isa.) 6:1-4
Молитва	брат Ф. Обидов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Да святится имя Твое!”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청장년을 위한 찬양 집회

오후 8:00 (9/20/17)	사회: 정유성 목사
영상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최성호 집사
성경봉독	송정향 집사
	시편 73:25-28

말씀 정유성 목사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송	정유성 목사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같이
광고	김성국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2:15-22
证道	常达传道
	神的物当归给神

새가족 환영회

예수의 유일성

청장년을 위한 찬양 집회

주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9/20-21(수-목) 오후 8:00

효도 잔치

9/23(토)오전 11:00 본 교회

제 115기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

9/24(주) 오후 4:00 본당

교회소식

9월 교육의 달 -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9/17(주) 장년 성경 공부 IV	9/20-21(수-목)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 청장년을 위한 찬양 집회
9/23(토) 효도 잔치	9/24(주) 제 115기 새가족학교 수료 예배
10/1(주) 장년 성경 공부 V	10/6-7(금-토) 할렐루야 청소년 대회 (본 교회)

알림

1. 수재민을 위한 특별 현금 태풍 '하비' 와 '어마' 로 인해 수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현금을 오늘 9/17(주) 예배 때 드립니다.
2. 저녁 예배 시간에 장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IV'
3. 청장년(청년 선교부, 30,40대 선교부)을 위한 찬양 집회 안내
1) 일시: 9/20-21(수-목) 오후 8:00, 9/21(목) 오전 6:00 2) 주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3) 강사 정유성 목사 (덴버한인북부장교회 담임) 4) 이번 주 제자 훈련은 쉽니다.
4. 성탄절 칸타타 'Gloria' 연습이 오늘 9/17(주)부터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찬양대원, 합창단원, 경배와 찬양팀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효도 잔치 안내 1) 일시: 9/23(토) 오전 11:00 2) 장소: 교회 3) 대상: 71세 (1946년) 이상 되신 분
6. 제 115기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가 9/24(주) 오후 4: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회, 지역, 교회학교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새 가족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 Awana 개강 안내 1) 등록 장소: 2층 유치부실 앞 2) 개강: 9/24(주) 오후 3:00 3) 문의: 차평화 전도사
8. 중교 교포부 설립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10/8(주) 저녁예배 시간에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위의 중국 교포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할렐루야 청소년 대회가 Sammy Lee 전도사(미주사랑의교회)를 강사로 10월 6-7일 (금-토) 본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 가스펠 스타 C 미주대회 방송이 오늘 9/17(주) 오후 6시에 단비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11. 교육부 단기선교 지원을 위한 빈 병과 빈 캔 모으기 안내 각 가정과 교회에서 배출되는 빈 병과 빈 캔을 교회 파킹장에 배치한 수집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2. 9/16(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60대 선교회 (다음주: 70대 선교회 이상)
13.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형섭 집사, 차문희 집사, 정사랑 어린이

새가족

한송연 (청년대학 1Y1) 이 정 (에스터 2F13) 권혁우 (청년선교 2Y3)

교우소식

병 환 유숙자 권사 (1F9)께서 뉴욕병원 861호실에 입원중이십니다.

목사 안수 김정환 집사 (김미자 권사 4WH2)의 장남 김재상 전도사가 9/12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강철호 집사 (강옥순 권사 2F7)의 사위 박성권 전도사가 9/14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금식기도자

월 / 김영미 김나영 길정애 차동미 박경미

수 / 이윤진 이영주 문승재 이소영 김홍덕 김성미

금 / 계연란 이양미 이소영 전지희

주 / 김영미 정민영 길정애 고은비 이혜진

화 / 이윤진 이영주 이양미 이소영 전지희 김성미

목 / 전지희 김지영 이소영 허준

토 / 계연란 문승재 이소영 조승희 이희정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2부	오전 10:30		유아부		유아부실(2층)
	3부	오후 12:15		유치부		유치부실(2층)
	4부	오후 02:00		유년부		유년부실(4층)
	오후	오후 04:00		초등부		초등부실(3층)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토요모임 오전 9:00	중등부실(4층)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금요모임 오후 6:30	고등부실(3층)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유아부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중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출석

1부 예배	292	러시아어 예배	24	영어부	36	중등부	67
2부 예배	327	청년 선교부	86	유아부	22	고등부	56
3부 예배	324	주일 저녁 예배	393	유치부	31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97	새벽 예배	882	중국어 교육부	18	교회 학교 예배	456
영어 예배	150	수요 기도 예배	184	유년부	98	주일 낮 장년 예배	1708
중국어 예배	308	새가족 환영회	11	초등부	88	주일 낮 총계	2164

9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홍승룡 장로

헌신기도(다움주)	허경화 장로	홍승룡 장로	김용생 장로	전성호 장로
책임권사	김연희 권사	최은숙 권사	김경구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임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다비다, 갈렙 주일식사: 교포부 (다움주: 디모테/에스더)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7)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始祖) 아담과 하와가 낙원(樂園)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29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3장 1-11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혜 자는 음식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나 목에 칼을 뒤서라도 그것을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2). 왜냐하면, 음식 앞에서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져서 공공이를 가지고 속이려는 음식에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허무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아무리 내 손에 잡은 것 같아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5). 지혜 자의 훈계를 듣고 고아들을 돌보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10). 우리 가정이 겸손히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더욱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323장 / 소요리 문답 / 23장 12-25절

자녀를 지혜롭게 키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즐거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24). 그렇다면 어떻게 키우는 것이 지혜롭게 키우는 것일까요?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채찍으로 훈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13-14). 정직하게 키워야 합니다(16).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연습시켜야 합니다. 욕심부리지 않게 키워야 합니다.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잠자길 즐거워하면 가난하여지고 헤어진 옷을 입을 뿐입니다(20-21). 부모님을 공경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22,25).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실현되고 지혜로운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213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3장 26-35절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두고, 눈으로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26). 마음을 음란한데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깊은 함정이었을 뿐입니다(27). 그리고 술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근심이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분쟁과 원망이 누구에게 오

고, 까닭이 없는 상처가 왜 있을까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여러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29-30). 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행여 술에서 깰까 봐 술을 다시 찾고 술에 잠겨 살 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유혹에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524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4장 1-12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다 보우하시고 보살하십니다(12). 마음을 만드신 이가 어찌 마음을 알지 못하시겠고,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영혼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마음과 행동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324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4장 13-22절

의인은 일곱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1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넘어져 있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던지 상관없이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한 것에 실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지지치 않고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그 지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330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4장 23-34절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곧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들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덮여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30-31).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보기도 흉할 뿐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고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함이 군사같이 닥칠 뿐입니다. 깨어있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무너진 담도 보수하고, 죄라는 가시덤불도 뽑고 잡초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